

정부, 올해 청년고용 104만명 지원한다

6조 투입...공공일자리 2만8000개 창출

디지털 일자리 5만명...민간채용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 104만명에 대한 고용 지원에 나선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도 유도한다.

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8만3000명 감소했으며, 청년층 비경

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규모는 44만8000명으로 8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2.2%로 전년대비 1.3%포인트 감소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줄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책을 확대·보완하는 등 올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들이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추진 과제(4조4000억원, 79만4000명)에 1조5000억원, 24만6000명 지원을 추가해 올해 총 5조9000억원으로 104만명+α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 지원 과제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지원 인원을 6만명 늘리기로 했다. 총 5611억원이 투입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200억원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非) IT 직무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만 '고용증대세제' 적용기한은 연장을 검토한다. 이를 대책 모두 민간의 청년채용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를 강화한 것이다. 디지털과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1만8000명 채용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지원 3000명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1000명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6800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1500명 등이다.

정부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활방역 일자리 등 청년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2142억원이 투입됐다. 또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2000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 조속히 채용,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채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제네시스, 해비치 체험서비스 운영

제주 리조트서 G70·GV80 시승...2년 간 투숙객 대상 제공



제네시스가 중형 스포츠 세단 '더 뉴 G70',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와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해비치x제네시스 고객 체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제네시스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퍼시픽펜타카와 함께 선보이는 '해비치x제네시스 고객 체험 서비스'는 앞으로 약 2년 간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투숙 고객으로 제공되는 차량 체험 서비스다.

서비스 체험을 원하면 해비치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투숙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하루 정해 G70 또는 GV80차량을 시승할 수 있다. 체험 기회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비치 리조트 내부에 입점된 퍼시픽펜타카 영업점을 통해 편리하게 차량을 받을 수 있다. 해비치 호텔 내외부에 마련된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와 해비치는 오는 5월까지 제네시스 멤버십 고객에게도 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이번 체험 서비스가 특급 호텔과의 제휴를 통해 제네시스의 상품성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그니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광양항만 26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6일까지 해빙기 대비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광양항 1단계 부두 등 항만시설물 64개소와 건설현장 2개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해빙기 취약시설인 급·배수시설,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및 침하시설 등이다. 특히 공사는 CS E.Y.E(안전점검반)를 편성해 점검 인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드론과 항만안내선을 활용해 점검이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를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임원 및 외부전문가, 운영사 담당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 보수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긴급보수 등을 통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삼겹살 먹는 삼삼데이, 농협중앙회 '대한민국 새희망 응원 캠페인' 삼겹살을 먹는 삼삼데이인 3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새희망 응원캠페인 '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줄 목욕탕 욕실과 꽃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자영업자 빚으로 벼터...서비스업 대출 139조원 증가

전년동기대비 186조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1년새 186조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빚으로 벼터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업의 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 불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39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85조9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5.4%로 지난해 3분기(15.4%)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했다.

지난해말 서비스업 대출금은 88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조7000억원 늘었다. 전년동기대비는 138조8000억원(18.7%) 급증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서비스업 대출 중에서는 주로 자영업자가 몰린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비중이 약 31%로 높은 편이다.

도·소매업 대출은 지난해말 전년동기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났고, 전년동기대비 32조9000억원 급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3조1000억원 늘었다.

제조업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35조7000억원 늘어 지난해 4분기(12조4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 전년동기대비는 2조2000억원 줄었다.

연말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연말 기업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금 일시 상환에 나선 영향 등으로 줄어졌다.

건설업 대출은 4분기말 기준 전년대비 7000억원 감소했고, 전년동기대비는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쓰는 운전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말 기준 82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7000억원 늘었다. /뉴시스

전남산 키위 품종 유럽에 수출

전남농기원 개발 해금·해원 '로열티 받는다'

전남에서 자체 개발한 키위 품종 해금·해원이 유럽에 진출해 로열티를 받게 됐다.

3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키위 신품종 해금·해원을 유럽에 수출하기로 프랑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진출로 100ha 규모에 보급할 경우 10년 간 약 30억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자체 개발한 키위 신품종을 프랑스에서 시험재배 했으며 2019년부터 수출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전남도가 개발한 키위 품종은 품질과 병에 대한 내성이 우수해 유럽 지역 보급을 희망하는 프랑스 키위 회사를 통해 보급하게 됐다.

전남도 농업연구 성과가 유럽지역으로 진출하는 첫 사례로 국내 농

업기술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은 향후 30년 간 유럽지역 27개국에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프랑스 회사에서는 두 품종의 목표 생산공급과 과일 생산판매 수익에 따라 일정한 로열티를 전남도에 제공한다.

현재 유럽에는 약 10여 개국의 4만2000여ha 면적에서 매년 키위 81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동유럽 국가 등에서는 재배면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약 500여 농가에서 165ha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으로 유럽에서 생산되는 키위를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키위재배 농가들의 우려를 해소시켰다.

/나주시철훈 기자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자 5명 훈·포장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 '동탑산업훈장'

황정환·정광숙·하진호·김형범 포장·표창



왼쪽부터 최재훈·황정환·정광숙·하진호·김형범 수상자.

광주지방국세청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해 성실납세자 5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최재훈 남화산업주식회사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최 대표는 성실한 기업경영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봉사, 복지, 문화, 체육진흥사업 지원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인재 양성,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대표는 성실한 기업경영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봉사, 복지, 문화, 체육진흥사업 지원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인재 양성,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연시건설은 1997년 설립한 종합건설업체로 관급공사와 민간 수

주를 통해 고품질 건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린알로에는 '나눔과 섬김'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정확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

주식회사 바나는 2004년 6월 설립한 아스콘 제조업체로, 지역친화적 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목적하우즈는 2013년 설립 이후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 납부했으며 매년 늘어나는 매출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한동주 기자

순천천연물센터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연구과제 우수사업 선정

순천시는 출연연기관인 (재)순천천연물연구소개발 연구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해 '아로니아 소재 개발(가공기술) 및 제품화'를 성공시킨 모범사례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순천천연물연구소 연구팀은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아로니아를 소재로 한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식초, 음료, 정제물을 활용한 젤리스트, 와인 등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아로니아 농가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예로사황 해결과 경제적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들을 순천시와 자매결연 한 중국 닝보시와 수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주TP, 산업기술단지 거점강화사업 S+ 등급 획득

기업·장비·산업DB 분야 지역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광주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국 19개 TP를 대상으로 한 올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 등급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는 정책기획 플랫폼과 기업지원 플랫폼 부문으로 나눠 공동 운영하고 있다.

광주TP는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고도화 및 성과 창출 확대'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기반 발전 전략 수립, 데이터 플랫폼 기반 통계 관리 강화, 기술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광주형 중소 선도기업 육성, 지역기업 성장 촉진 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기획 플랫폼 부문에서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7억 원(국비) 확보 이외에 사업

비 7000억 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14개사 436억 원 투자협약 체결, 데이터 기반 지역성과관리시스템 구축 42억 원 규모의 R&D 과제에 선정됐고, 온라인 기술닥터시스템 구축 등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